

[특집] 대구역은 Daeguyeok인가 Daegu Station인가?

공공 번역 표준화를 둘러싼 오해: 한강은 Hangang이기도 하고 Han River이기도 하다

정하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공공 번역의 주체는 한 국가의 정부이고, 그 결과물의 사용자는 외국
의 정부를 비롯한 세계 시민들이라고 볼 때, 공공 번역은 한 나라의 비
전과 정책,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를 외국어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작업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공 번역은 세계 속에서 국가적 혹은 문화 공동
체적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결국 한 나라의 태
도나 의도와 관련된다.

오랫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한국 정부의 공공 번역
작업이, 최근 들어 여러 기관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사회적, 언어적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열악한 조건에서 주로 하청을 통해 큰 그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
어 온 여러 공공 영역의 번역이 앞으로는 통합적,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야 하며, 더욱 전문적인 손길과 장기적인 방향성이 요구된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지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 번역의 의제 중 용어 표준화에 대한 담론이다. 공공 번역의 질적인
향상과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화는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인지, 그렇
다면 표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공공 번역의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자. 첫째, 국가의 모든 부처 및 기관의 조직이나 수행하는 정책 및 업무를 외국어, 특히 현재 세계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로 번역해 내는 영역과, 둘째,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전반을 외국어로 소개하고 풀어내는 작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역은 각 정부 부처의 이름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고유명사의 번역을 포함하여,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의제를 영문으로 이름 짓고 설명하는 작업 전반을 이룰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이라고 공식 영문 명칭을 붙이는 작업은 단순히 이름을 넘어서 새로운 행정부의 과학 관련 비전을 담아내는 일이기도 하다. 햇볕 정책을 'sunshine policy'로 표기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trust process'로 풀어내는 작업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변해 내는, 많은 논의와 검토를 요하는 전문적인 언어 활동이며, 이러한 명칭은 대체되지 않는 단 하나의 공식 용어로 기능한다.

공공 번역에서 또 하나의 영역은 한 나라 고유의 문화를 외국어로 표기하고 설명하는 작업으로, 번역학에서 문화소(文化素) 번역이라고 일컫는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좁게 보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등 여러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업무와 정책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 동시에, 넓게는 문화 공동체로서 한 나라의 정체성을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공신력 있게 표현해 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치를 'kimchi'로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한국의 독보적인 도예 문화인 분청사기를 어떻게 영문으로 표기해야 할지, 또 넓게는 판소리와 창극이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노와 가부키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

는지를 정의 내리는 작업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즉, 앞서 설명한 철저하게 정부 업무의 영역 안에서 진행되는 번역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용도를 가진 번역 작업인 것이다.

용어 표준화에 대한 엇갈리는 기대와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공 번역의 영역은 바로 이 문화소 번역 부분이다. 국가 기관이 공식적인 목적과 용도로 규정하여야 할 용어 및 고유명사를 표준화하고 이를 지키는 것과, 정부의 공적인 영역 밖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구성해 내는 문화소에 표준화라는 잣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한강은 Hangang인가, Han River인가? 혹은 Hangang River일 수도 있는가? 과연 이 중 하나만이 표준으로 제시, 준수되어야 하는가?

문화소 번역의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소 번역의 다양한 방법론을 짚어 봐야 할 것이다. 문화소 번역은 크게 음역(音譯)과 의미역(意味譯)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의미역은 다시 번역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직역에 가까운 번역과 해설에 가까운 번역으로 나뉜다.

한강 같은 고유명사를 영어로 음역하면 Hangang이고, 의미역(엄격히 말해 ‘한’이라는 강 이름만을 음역으로 남긴 부분의미역)을 하면 Han River이다. 문화소 중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어휘의 경우, 예를 들어 사주를 음역하면 *saju*, 직역에 가까운 의미역은 *four pillars of destiny*, 해설에 가까운 의미역은 *fortunetelling by reading the year, month, day and hour of one's birth*로 풀어낼 수 있다.

음역은 다시 말해 특정 문화를 가장 있는 그대로 혹은 해당 문화 밖의 언어에서 가장 낮설게 ‘이국화(foreignize)’하여 드러내는 전략이며, 의미역 중 특히 해설에 가까운 의미역은 특정 문화를 타문화권 중심으로

풀어내어 가장 익숙하게 ‘자국화(domesticate)’하는 전략이라고 번역학 이론에서 설명한다. 즉, 한국의 문화소를 음역하는 것은 한국 문화 고유의 모습에 가장 가깝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해설에 가깝게 의역을 하는 것은 도착어의 문화에 맞춘 모습으로 보여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화소 번역은 세계 안에서 한 개인이, 혹은 공공 번역의 경우 한 국가의 정부가, 고유의 문화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혹은 타자의 시선에 맞춘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태도와 정체성의 문제로 직결되는 일이다. 특히 세계 문화의 서구 중심적 헤게모니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한국 문화의 현 위치 속에서 이러한 태도의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상반된 태도를 반영하는 음역과 의미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의 문화소를 표기하는 방식을 과연 표준화할 수 있을까? 비빔밥처럼 대표적인 메뉴는 음역한 *bibimbap*으로 표준화하고, 백김치는 부분 의미역한 *white kimchi*로, 이 둘보다 한식 메뉴로는 덜 알려진 육회는 서구 문화에 맞춘 의미역인 *beef tartare*로 표준화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강이라는 지명을 도로 표지판에서 영문으로 표기하고, 독도와 동해같이 역사적, 국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유명사의 영문 표기를 표준화하여 이를 세계가 함께 사용하도록 이끄는 것은 공공 번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지명 표기법으로 *Hangang*과 *Han River*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하는 것, 혹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역사관에 입각하여 *Dokdo*

라는 영문명을, 혹은 East Sea라는 영문 지명을 표준으로 고수하는 것은 중요한 공적 업무로, 다른 어떠한 행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답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결정을 통해 국민 혹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국가의 정책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지극히 공식적인 영역의 활동으로서 공공 번역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한식의 세계화, 관광 콘텐츠의 질적 향상 도모, 혹은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식 표기법의 표준화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문화를 타 언어로 다양한 맥락 안에서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비빔밥이 아무리 세계에 널리 알려져 대다수가 *bibimbap*이라고 한국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사용하면 되는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한식당의 운영자가 혹은 한식 관련 글을 쓰는 외국의 언론인이 잘 정리된 의미역 용어, 정의 혹은 해설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양질의 문화소 번역을 제공하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공공 번역의 영역에서 해낼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식 영문 사전 혹은 지침서를 통해 *bibimbap*이라는 음역 명칭과 함께 직역 명칭 ‘rice mixed with meat and vegetables’ 더 나아가 해설에 가까운 ‘rice served with a variety of herbs, vegetables and slices of marinated raw beef (혹은 grilled beef), to be mixed with spicy pepper paste’라는 의미역 버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즉 사용자의 용도와 목적에 맞춰 번역 어휘를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안내하는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문화소 공공 번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온돌과 김치, 한복 정도는 의미역을 지양하고 음역 형태 그대로의 사용을 권장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문화 외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공공 번역의 가장 두드러진 기능이기도 하다. 그 반면 정부의 공식적인 활동 밖에서 민간 차원의 한국 문화 이해와 관련 어휘 사용을 돕는 것은 공공 번역의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역할이며, 이를 용어 표준화라는 단기적인 의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자면,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 차원에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만한 주요 문화소들을 정리해 《한국문화 주요 어휘 영문 표기 안내서》를 구축하여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해 나가는 장기적인 기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침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공신력 있는 번역을 제시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실용적인 어휘 사전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1) 음역: 정부의 국문 로마자 표기 원칙에 따른 공식 영문 표기 제공
- 2) 의미역: 국문 어휘의 결,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직역에 가까운 번역
- 3) 해석: 영어로 해당 어휘를 풀어서 설명하되, 지나치게 구체적인 서구 문화 중심 번역(예를 들어, 추석을 Korean Thanksgiving이라고 표현)을 피하는 동시에 중국 및 일본의 문화에 기대지(한의학을 Chinese herbal medicine이라고 풀거나 기생을 Korean *geisha*라고 표현하는 등) 않고 중립적이고 정확하게 해설하는 작업

물론 이러한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양질의 번역은 의뢰인, 번역자 그리고 사용자

간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논의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지고 개선되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최소한의 기간 안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입찰 방식의 현행 대다수 공공 번역 작업 환경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수준 높은 번역을 가로막고 있다. 공적 업무의 매뉴얼화, 작업의 개방적인 진행, 일방적인 갑을 관계의 개선, 함께 일하는 환경 등 우리 사회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의제들이 공공 번역 분야에서도 역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가꾸 온 우리의 문화를 외국어로, 특히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세계어인 영어로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인 방대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작업은 공공 번역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져 공적인 담론 형성과 함께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공공 번역이라고 하여 표준화를 통해 민간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뿐 아니라 무의미할 수도 있다. 파스타가 한국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 어휘의 일부가 되다시피 한 것은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스시가 한국어,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일식의 스시와 마키를 함께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해서 일본 정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표준화시키거나 수정할 영역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공공 번역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태도와 의도를 결정하고, 이를 표현해 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이다.

모든 번역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구사된 내용을 이해 가능한 언어로 담아내는 작업이되, 그 담아내는 내용 또한 문화적으로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된 결과물이 도착어에서 완벽하게 이해되기는 어렵다. 우리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타자의 문화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타자의 낯설고 신선한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번역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공공 번역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문화를 번역해 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외국인이 자신의 시각에서 한국의 문화를 번역해 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우리 문화가 그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할 것이며, 이 고민은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균형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과 태도에 따라 Hangang이라는 표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Han River가 더 적절할 때도 있으며, 모순적인 절충안이라고 하더라도 Hangang River를 쓸 수도 있으며, 영어의 문장 구조 안에서 the river Han, the river Hangang 등으로 변주될 수도 있다. 공공 번역이라는 명분하에 어디까지 개입하여 통제할 것인가보다는, 우리의 고유명사들과 문화소들이 외국어 안에서 더 유연하게 잘 사용되도록 안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낯선 우리를 우리가 아닌 타자에게 드러내는 작업에 대해 우리부터 좀 더 편해지고 당당해질 때 우리의 이름, 언어,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 속에서 그 자체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